

여성혐오의 관점에서 본 여성영웅소설

- <정수정전>을 중심으로 -

최지녀*

<차 례>

1. 서론
2. 혐오의 양상
3. 여성영웅의 대응: 의의와 한계
4. 결론

[국문초록]

조선 후기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은 문무에 출중한 최고의 관료이자 장군으로서 이른바 '여성 리더'로서 형상화된다. 여성들이 리더가 되고자 할 때 남성이 느끼는 적대감은 비난, 혐오, 시기심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한 적대적 언행을 통칭해 '여성혐오'라고 부를 때 일반적인 의미의 여성혐오는 여성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증오하는 경향을 보이는 여성혐오자 개인의 속성을 가리키며, 구조적인 의미의 여성혐오는 가부장제의 규범, 기대, 통치 이데올로기를 단속하고 강요하는 사회적 환경의 속성을 가리킨다. 여성영웅소설의 주요 작품 가운데 하나인 <정수정전>은 여성의 활약 및 남주인공과의 갈등이 두드러지는 작품이기에, 여성혐오의 징후들이 다른 작품에 비해 선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여성영웅의 주변 인물들은 여성영웅을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여성'으로 간주한다. 주인공 정수정은 가정 내에서 도덕적 조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주변 인물들의 비난 혹은 조롱의 대상이 된다. 남성들은 주로 혐오 발화를 통해 남성이 전유한 공간인 조정과 전장에서 활약하는 정수정에게 가사노동의 의무와 아내의 역할을 상기시킨다. 한편 여성영웅소설의 두 주인공은 작품의 '세계관'에서 가장 탁월한 두 인물이며 따라서 가장 치열한 경쟁 상대이다.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을 자신보다 더 성공한 경쟁자로 여긴다. <정수정전>의 장면은 정수정이 자신보다 높은 직책을 담당하고, 큰 공을 세우는 것을 끊임없이 질시하며 갈등을 유발한다. 두 사람은 전장에서 공개적 굴욕을 면제받고 체면, 자존심, 평판, 존경

* 홍익대학교 강의전담교수

등을 취할 수 있는 희소한 가치를 다룬다. 혼인 후의 정수정은 ‘도덕적 지원자’의 역할에 충실하여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남편의 다른 아내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장안은 다른 사람 앞에서 정수정을 비난하고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를 통해 전장에서 받은 수모를 되돌려주는데, 이는 혐오가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고 가부장제가 할당한 가정 내의 임무로 여성을 복귀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수정이 가정 밖에서의 삶을 끝까지 유지하고 아들이 어머니의 유산을 계승하여 외손봉사(外孫奉祀)를 한다는 사실은 여성혐오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 여성 주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여성혐오, 여성영웅소설, 정수정전, 가부장제, 혐오 발화, 도덕적 조력, 경쟁

1. 서론

여성영웅소설의 독법은 다양하다. 주인공인 여성영웅을 중심에 두고 생각할 때 여성영웅소설은 여성이 남성의 영역에서 활약하며 숨겨진 능력을 발휘하는 서사로 읽을 수도 있고, 무너진 가문과 국가를 복원하는 서사로 읽을 수도 있으며,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랑과 혼인을 성취하는 서사로도 읽을 수 있다. 주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서사의 종착점에 있는 ‘여성영웅의 규방으로의 귀환’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의 한 대목은 이 문제와 관련한 고전적인 유비(類比)이다.¹⁾ 울프가 가상의 공간 옥스브리지에서 ‘사고의 걱정’에 사로잡혀 ‘잔디밭’을 가로지를 때, 이를 지켜보던 관리자는 경악과 분노를 표한다. 잔디밭은 대학의 연구원과 학생에게만 허용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울프가 잔디밭을 벗어나 자갈길로 접어들자 그는 평온한 표정을 되찾는데, 그때 이미 울프의 ‘작은 물고기’는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이때 잔디밭은 희소한 가치를 지닌 남성의 영역을, 울프가 놓친 작은 물고기는 문학적인 영감 혹은 나아가 여성이 지닌 잠재적인 능력을 의미할 것이다. 관리자는 잔디밭에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들어온 여성을 내쫓는 행위를 통해 잔디밭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1)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이미에 역, 예문, 1995, 10~12쪽.

이와 같이 남성의 것으로 간주되는 영역에 들어간 여성에 대한 적개심과 그 여성에게 가부장제가 지정한 원래의 자리를 찾아주고자 하는 일종의 체계를 우리는 ‘여성혐오’(misogyny)라고 부를 수 있다. 여성혐오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일반을 뜻하기도 하지만 보다 정확히는 가부장제의 질서에서 벗어난 여성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반응과 수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성영웅소설에 보이는 주요한 갈등 — 예컨대 여성영웅의 혼인 거부, 여성영웅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주변 인물의 간섭과 통제, 여남의 우열 다툼 등은 전통 사회의 성 역할에서 벗어난 여성의 사회적 활약과 그에 대한 경계를 기본 구조로 하기에 여성혐오의 관점에서 더 풍부하게 이해될 여지가 있다.

한국 고전문학에서 여성혐오를 발견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구비문학 분야에서 주로 시도된 바 있으나 아직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며,²⁾ 특히 여성영웅소설을 여성혐오의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읽고자 한 시도는 이제껏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³⁾ 이에 본고에서는 여성영웅소설의 분석에 여성혐오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여성영웅과 그 주변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시론적인 작업은 여성영웅소설의 주요 작품 가운데 하나인 <정수정전>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다. <정수정전>은 정수정이라는 여성이 부친의 복수를 위해 남장을 하고 관료 및 장군으로 활약하면서 어린 시절의 정혼자 장연과 재회하여 갈등을 빚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기본 줄거리로 한

2) 김영희, 「한국 구술서사와 여성혐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8; 이정아, 「시집살이 노래의 노랫말에 나타난 여성혐오와 그 의미」, 『우리문학연구』 60, 우리문화회, 2018; 송소라, 「남성혜절서사 다시 읽기: 해학과 풍자에 가려진 여성혐오」, 『어문연구』 48권 3호, 어문연구학회, 2020 등의 선행 연구가 있다.

3) <정수정전>은 여성영웅소설의 종합적인 연구에 빠짐없이 포함되는 작품이지만 개별 연구 논문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주요한 연구 가운데 사진설, 「<정수정전> 이본의 계통과 변모 양상」,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집문당, 1998 및 서혜은, 「<정수정전>의 대중화 양상과 그 의미」,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2006은 이본 대조를 바탕으로 한 작품의 변모 양상에 대한 연구이고, 광정식, 「<정수정전>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실현 양상」, 『어문학』 72, 한국어문학회, 2001; 전기화, 「조선 후기 여성영웅소설 <정수정전> 재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8; 임현아, 「<정수정전>에 나타난 성 역할 인식의 변화 고찰」, 『장서각』 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등은 여성영웅의 성격에 초점을 두 연구이다.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수정전>은 여성의 활약 및 남주인공과의 갈등이 두드러지기에 다른 작품에 비해 여성혐오의 징후들이 보다 잘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여성영웅이 정체를 밝힌 후 가정으로 쉽게 복귀하거나, 여남의 애정이 부각되면서 경쟁과 다툼이 나타나지 않는 작품에는 여성혐오가 소거되거나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본론에서는 <정수정전>을 여성혐오의 존재와 그에 대한 대응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의의를 논할 것이다. 여성혐오의 개념과 연구의 가설에 대해서는 아래에 상론한다.

2. 혐오의 양상

여성영웅소설은 대체로 여성의 주체성, 자아 인식, 나아가 여성 해방이라는 주제와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고 여겨진다. 이는 남장을 한 여성이 조선시대 여성에게 허용된 사회적 활동의 범주를 크게 넘어서 대다수의 남성조차 바라기 어려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지위에 이르기 때문이다. 남장 여성을 문무에 출중한 최고의 관료이자 장군으로 그림으로써 여성의 잠재적 능력과 여남의 차이 및 평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⁴⁾

이러한 여성영웅은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남성 중심의 사회에 등장한 ‘여성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전장에서 원수(元帥)로서의 활약을 통해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리더’에게는 추종자도 있지만 불만을 품고 견제하는 이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특히 여성 지도자를 의식 혹은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편견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남아 있다.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여성들이 리더가 되고자 할 때 남성이

4) 여성영웅소설 일반 혹은 각편이 여남의 평등 및 여성 해방에 ‘얼마나’,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지만 여성영웅소설이 이러한 주제의식과 근본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큰 이문이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한국 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 소명출판, 2017을 들 수 있다.

느끼는 적대감은 비난, 혐오, 시기심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각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여성’, ‘육체성을 가진 여성’, ‘성공한 경쟁자로서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았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여성’은 가정을 비워두고 가사와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여성이며, ‘육체성을 가진 여성’은 월경·성관계·출산 등을 수행하는 육체로 인해 더럽고 변하기 쉬우며, 나아가 죽음을 상징하는 여성이다. ‘성공한 경쟁자로서의 여성’은 남성보다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성공한 여성이다.⁵⁾ 이러한 구분은 주로 현대 사회를 배경으로 추출된 것이지만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영웅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이해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여성영웅은 조정과 전장에서 활약으로 인해 가정에 소홀한 인물이고, 대부분의 남성보다 월등한 능력을 지니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여성영웅에 대한 적대감 혹은 부정적 감정은 ‘여성혐오’(misogyny)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표현할 수 있다. 여성혐오의 개념은 사전적 정의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의미와 일종의 구조적 접근에 해당하는 특수한 의미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⁶⁾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여성혐오란 여성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즉 젠더를 이유로 증오하는 경향을 보이는 여성혐오자 개인의 속성이다. 구조적인 정의는 여성혐오의 행위자가 아닌 대상자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때 여성혐오는 가부장제의 규범, 기대, 통치 이데올로기를 단속하고 여성에게 강요하는 사회적 환경의 속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혐오의 적대적 위력은 특정 계층에 속한 여성들에게 ‘바로 그’ 사회적 위치에 자리한다는 이유로 가해질 수 있으며, 각종 통제와 불이익을 이용하여 여성이 가부장제 질서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가부장제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5) 마사 누스바움, 『타인에 대한 연민』, 임현경 역, 알에이치코리아, 2020, 213~215쪽.

6) 케이트 맨, 『다운 길: 여성혐오의 논리』, 서정아 역, 글항아리, 2023에서는 이를 각각 ‘순진한 개념’(naive conception)과 일종의 ‘개량적인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다. 후자는 가시적 혹은 비가시적인 것까지 망라하여 여성혐오를 유형화하기에 적합한 확장성 있는 개념이다. 개량적인 개념의 맥락에서 “여성혐오는 여성혐오자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다.”(같은 책, 143쪽) 이하 여성혐오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 책의 11~149쪽 참조.

여성혐오의 구조적인 정의를 여성영웅의 행위와 결부해보면 여성영웅이 가사와 양육이라는 가정의 임무에 소홀한 채 가정 밖의 공간에서 남성보다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주변 인물의 적대감과 불쾌감을 유발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여성영웅소설에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을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여성’과 ‘성공한 경쟁자로서의 여성’으로 설정하고 여성혐오의 양상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⁷⁾ 이른바 여성우위형 여성영웅소설로 분류되는 작품 가운데 여성이라는 사실을 밝힌 채로 활약하는 기간이 길고, 따라서 여남의 갈등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는 작품인 <정수정전>을 통해 여성혐오와 그에 대한 대응을 살핀다.⁸⁾

1)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여성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여성’은 달리 말해 ‘비대칭적 도덕적 지원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여성이다. 가부장제 질서 아래서 여성은 남성에게 사랑, 쾌락, 음식, 관심, 돌봄, 동정, 존경, 경애, 양육과 같은 도덕적인 재화를 일방적으로 제공할 의무와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⁹⁾ 조선시대에는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이 내외법(內外法)에 기반하여 실제의 차원과 추상의 차원에서 모두 분리되어 있었지만 여성은 가정 내부에서 가사 노동과 후손 생산 및 양육을 담당함으로써

7) ‘육체성을 가진 여성’은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과는 관련이 적은 속성이다. 남성과의 신체적 접촉, 성적 긴장감, 여성 고유의 신체적 특징이나 생리적 현상 등과 관련된 내용은 여성영웅소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김희경전」, 「방한립전」, 「하진양문록」, 「부장양문록」과 같이 상대적으로 장편에 속하는 작품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의식하는 대목이 간혹 보이며, 특히 ‘맹혈’이 등장하면서 여성영웅의 육체와 성(性)에 대한 관심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최지너,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이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5, 132~139쪽 참조.

8) 본고에서는 활자본 <녀장군전>〔『구활자본고소설전집』 26, 인천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4, 467~530쪽〕을 저본으로 삼고 필사본 <정수정전>(박순호 편, 『한글필사본자료총서』 88, 보경문화사, 1986, 609~730쪽) 및 목판본 <鄭秀晶傳>(翰南書林, 1920,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9) 케이트 맨, 앞의 책, 13쪽 및 63쪽.

써 가정 외부의 남성을 지원하고 가부장제 가족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여성영웅은 조정의 신료이자 전장의 장수로서 가정 외의 활동에 주력하면서 바로 이러한 가정 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인데, 이로 인해 종종 주변 인물들의 비난 혹은 조롱의 대상이 된다. 주로 남성 인물을 통해 표현되는 여성에 대한 ‘혐오 발화’는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가벼운 놀림이나 농담을 가장한 경우도 있지만, 그 본질은 예외 없이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그것의 위반에 대한 경고이다.

“너갓튼 거슨 구생유취일 쏘더러 내 드르니 너는 일 계집으로 임군를 속이고 당돌이 진상(陣上)에 나와 대장부로 거르고자 하니 하로 개아지 범 모로난 심이 로다 내가 일국 대장으로 엇지 너갓튼 기집 아희와 직조를 겨러 칼를 드레리오 너 난 썰니 돌아가 군중에 밥이나 지여 주고 군사 옷이나 꾸며 줄지어다”(〈너장군전〉, 518)¹⁰⁾

〈정수정전〉에는 북방 오랑캐의 침입이라는 에피소드가 두 차례 등장하는데, 1차 침입에서 정수정에게 패배하고 돌아간 북방 오랑캐는 전열을 가다듬어 더 맹렬한 기세로 다시 침입한다. 이 때 정수정은 여자임이 밝혀진 상태에서 출전하여 위기에 처한 천자를 구출하고 오랑캐와 접전을 벌인다. 인용은 전투 중에 적장인 용골대와 설전을 벌이는 대목의 일부로 용골대의 말에 해당한다. 용골대는 정수정이 어린 여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며 능력을 비하하고,¹¹⁾ 구생유취(口生乳臭), 하룻강아지, 계집아이 등의 표현을 써서 조롱한다. 또 밥을 하고 옷을 짓는 일이 여성의 본분이라고 말하며 ‘진상’에서 지휘를 할 것이 아니라 ‘군중’으로 돌아가 군사들을

10) 이하 본문에서 언급하는 〈정수정전〉은 연구의 저본으로 삼은 〈너장군전〉이며, 이외의 이본을 활용할 때는 별도로 언급한다. 저본의 면수는 괄호 안에 숫자로 간단히 표시한다.

11) 이 말은 성차별적 발화에 해당한다. 성차별(sexism)은 여성혐오와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다. 성차별이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규정한다면, 여성혐오는 가부장적 질서 내에서 여성의 위치와 기능을 제한한다. “성차별주의가 가부장제 사회질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한 갈래라면, 여성혐오는 가부장적 사회질서에 근거한 규범과 기대를 단속하고 강요하는 하나의 체제다.”(케이트 멘, 앞의 책, 61쪽)

뒷바라지 하는 일을 하라고 말한다. 이는 가부장제가 부여한 여성의 자리로 돌아가 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이다. 이러한 유형의 여성혐오는 ‘여자들이 남자들의 구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여자들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¹²⁾ 여성영웅소설의 배경은 대부분 중국의 송나라나 명나라인데, 여성영웅은 전장에서 맹활약을 펼치는 중원의 대원수이면서도 작중에서 멸시의 대상에 해당하는 오랑캐에게 조롱을 받는다. ‘가사 노동’과 관련한 의무를 상기시키는 이러한 말은 여성 리더가 직면해야 하는 여성혐오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 가운데 하나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당대의 보편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정수정의 부친을 모함한 간신 진량이 만왕(蠻王)에게 투항하면서 정수정을 비난하는 대목 또한 남성의 영역과 여성의 영역을 분리한 채 남성의 전유물인 조정과 전장에 들어온 여성에 대한 혐오 발화이다.

더 정수정은 년소한 아희일 썬더러 그 중의 남자도 아니오 일개 녀자의 몸으로 음양을 변체하고 어두운 님군을 속이고 벼살이 일품에 거하야 국권을 조롱하니 그 나라 정치난 가히알 거시오 또 생각한즉 대장부로 일개 녀자 손의 찬출(蠶黜) 을 당하니 엇지 통분치 아니하오릿가 원컨대 대왕은 진양의 원을 용납하오서 종군케 하시면 일비지역(一臂之力)을 도와 남경을 파하야 우으로 대왕에 은혜를 갓고 아래로 정수정의 원수를 갓고자 하나이다(510)

진량은 자신의 잘못으로 권력을 잃고 귀양을 가게 된 것을 정수정의 탓으로 돌리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여성혐오는 여성의 능력에 대한 평가나 비하가 아닌 여성의 존재 자체를 적대적으로 여기는 데 초점이 있다. 일품 벼슬에 있는 것,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것, 정적을 축출하는 것 등의 행위는 권력의 최상층에서 남성이 수행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진량은 행위의 옳고 그름, 능력의 유무, 정당성 등을 떠나 여성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12) 마사 누스바움, 앞의 책, 217~239쪽.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 것이다. 진량의 목표는 송나라를 무너뜨리고 정수정을 높은 벼슬에서 끌어내리는 것, 곧 여성에게서 리더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다.

여성혐오의 목표는 여성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성을 최종적으로 가부장적 질서 내로 귀속시키는 데 있다. 리더의 자리에서 물러난 여성은 ‘개인’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어머니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는 여성영웅이 제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가정에서의 의무를 다하게 된다는 서사적 귀결로 이어지게 된다. 정수정이 천자의 명으로 어린 시절의 정혼 상대인 장연과 혼인하게 되자 주변의 남성들이 보이는 반응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가) 맹동현이 장후를 대하여 소왈 “전일의 군후 위각노에 녀서(女壻) 될 쟈 덩 후의게 조롱밧는 걸 보왔더니 금일 덩휘 잡혀드러 군후 안해 될 줄 었지 아랏스리오”(497)

(나) 상이 인견하사 왈 “경이 덩수정을 능히 제어하여 도로혀 중군(中軍)을 삼았는다”(498)

(가)의 맹동현은 정수정 및 장연과 함께 출전했던 인물이자 장연의 벗이다. 두 사람의 혼인 연회에 참석한 맹동현은 앞서 장연이 위각로의 딸과 혼인했을 때 정수정과 함께 새신랑을 놀렸었는데 이제 정수정이 장연의 아내가 된 것이 놀랍다고 웃으며 말한다. 이 말에는 정수정이 남자로 지낼 때에는 대등한 입장에서 어울리던 벗이었지만 여자임이 밝혀진 지금은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곧 장연과 정수정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나)는 장연과 정수정이 혼인 후 천자를 알현했을 때 천자가 장연에게 한 말이다. 천자는 정수정이 도리어 중군이 되었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정수정이 대원수로 출전할 때 중군으로 장연을 지목하여 그가 수모를 당한 일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는 지난 전장에서 상하 관계가 역전되어

이제 부부관계에서는 장연이 대원수이고 정수정이 중간인 만큼 정수정이 장연의 수하로서 명령에 굴복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두 사람의 말 속에 들어 있는 ‘잡혀드러’, ‘제어해야’와 같은 표현은 가정 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정수정을 장연이 혼인을 통해 다시 가부장제의 질서 안으로 포섭하여 의무를 부여하게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런데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하는 인물은 남성에게 국한되는 것 같지 않다. 여성영웅이 가정에서 비워 둔 자리는 가부장제의 성 역할이 전복되지 않는 이상 다른 여성에 의해 채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가정에서도 가사와 육아, 그리고 가족에 대한 정서적 보살핌은 여성이 본래 해야 하는 일이지만 여성의 ‘사회생활’로 인해 부득이 가족이나 친지, 가사도우미, 보육 시설이 대체해야 하는 일로 여겨진다. 시어머니나 첩이 여성영웅에게 적대감을 가지는 여성영웅소설 속의 장면은 조정의 신료이자 장수인 여성영웅을 꼴불견으로 여기는 심리나 질투로 이해되기 쉽지만, 그보다는 가부장적 질서가 요구하는 아내나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여성영웅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한 불만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¹³⁾ 여성이 가부장적 질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다른 여성을 단속하고, 젠더화된 규범을 강요하는 현상은 흔히 찾아볼 수 있다.¹⁴⁾ 장연은 정수정의 행동에 대한 불만과 두 사람 사이의 불화를 어머니에게 일일이 고하는 데 이는 모친의 태도가 가부장인 남성의 영향을 받고 그 견해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¹⁵⁾

13) 이 점과 관련해 박희병, 『한국고전문학사 강의』2, 돌베개, 2023, 338~339쪽에서 <부장양문록>의 윤선강이나 <방한립전>의 영혜빙 같은 인물의 ‘희생’을 통해 여성 젠더가 당대 사회의 모순을 돌파하는 데서 제기되는 모순을 읽어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14) 케이트 맨, 앞의 책, 423쪽.

15) “이새 장휘 귀주로 가서 모부인의 죄압고 한원[원]을 맞친 후 북변에 가서 덩후계 곤란 당하던 전후사를 세세이 고하니 태부인이 경[청]과(聽罷)에 통분히 여겨 그 설치(雪恥)하고자 하거날”(528)

2) 성공한 경쟁자로서의 여성

‘성공한 경쟁자로서의 여성’의 면모는 보통 남주인공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이 관계에서 지배적인 감정은 경쟁심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영웅소설의 여남 두 주인공은 학문과 기질, 외모에 있어 탁월한 인물로 그려진다. <정수정전>에서는 장연이 먼저 급제하여 한림학사를 제수받고 이어 정수정도 급제하여 한림학사 겸 간의대부를 제수받으며 두 사람은 명성을 떨치고 벼슬이 점점 높아진다. <정수정전>을 포함한 <홍계월전>, <이학사전> 등의 여성영웅소설에서는 남성 인물이 여성영웅에게 희롱을 당하면서 희화화되는 장면이나 전장에서 위기에 빠져 여성영웅에게 구출을 받는 장면 등이 그려지면서 여성영웅이 남성영웅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¹⁶⁾ 그렇지만 그 차이는 절대적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장원과 차석, 대원수와 중군의 관계와 같이 상대적인 것이다.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은 작품의 ‘세계관’에서 가장 탁월한 두 사람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가장 적합한 경쟁 상대이기도 하다.

이 경쟁은 <이현경전>에서와 같이 남성의 여성영웅에 대한 애정과 이해, 차이의 인정을 통해 무마되기도 하지만¹⁷⁾ <정수정전>에서와 같이 격렬한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수정과 장연의 갈등은 전장에서 대원수 정수정이 중군 장연을 수하로 부리면서 발생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수정전>의 출전은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출전은 정수정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에, 두 번째 출전은 정수정의 정체가 밝혀지고 두 사람이 혼인을 한 후에 이루어진다. 첫 번째 출전에서 원수로 임명된 정수정은 중군

16) 여성영웅소설의 유형 분류는 초기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연구자 별로 분류의 기준이나 각편의 성격에 대해 이견이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 세 작품은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뛰어난 것으로 설정되어 있고, 정체가 드러난 후에도 여성의 사회적 활약이 지속되어 이른바 ‘여성우위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여성영웅의 활약과 그에 대한 가부장제의 통제를 ‘여성혐오’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본고의 입장에서는 ‘여성우위’는 관계의 역동성을 드러내기에는 제한적인 명명이 아닌가 생각된다.

17) 박현희,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남성인물 형상과 의미 - <이현경전>의 남성인물을 중심으로 -」, 『고전문학과 교육』 5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2, 145쪽 참조.

으로 장연을 지목하는데 장연은 처음부터 정수정의 수하가 됨을 불쾌히 여기고 마지못해 명령에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불쾌감의 정체가 경쟁심이라는 것은 정수정이 적장을 빼고 적진을 대파(大破)하는 활약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장연이 하는 생각에서 드러난다.

이새 장연이 중군을 직히고 잇서 양진 성패(勝敗)를 보다가 덩수정이 맹돌통을 베이고 또 오평의 진을 파하여 무인지경(無人之境)갓치 황행함을 보니 적진 장졸을 필경 씨도 업시 멀하고 대공을 세울 일이 다행은 하나 스사로 생각하건대 ‘내 벼살이 덩수정의 밋혜 든 것도 분하거니와 이번 출정의 수정은 적진 장졸을 풀 베이듯 하여 대공을 세우난대 나난 적졸 하나 잡은 공도 업스면 이 답에 무슨 낮으로 황상을 보이며 쫓듯내 덩수정에 밋혜들 생각을 하니 자괴한 일이 한두가지 아닐지라’(488)

장연은 정수정이 자신보다 높은 벼슬에 있는 것을 분하게 여기고, 앞으로 도 자신이 큰 공을 세운 정수정보다 낮은 벼슬에 있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분노·자괴감 등의 감정은 자신이 결코 정수정에 비해 능력이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장연은 조바심을 이기지 못해 무모하게 적군을 뒤쫓다가 위험에 빠져 정수정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무단으로 행동한 벌로 군문 밖으로 내쳐지는 수모를 당한다.¹⁸⁾ 장연은 정수정이 여자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면서도 정수정을 질시하고 경쟁심을 느끼며, 정수정의 수하에서 명령을 받는 일에 굴욕을 느끼고 있다. 이는 정수정의 정체가 드러난 후 대립과 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임을 예고한다. 정수정과 장연이 부부가 되어 다시 대원수와 중군으로 출전했을 때 장연의 질시와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18) “군문 밖으로 쓰러 내치니 이때 장연이 심중의 앙양하더라”(489)

별안간 좌우를 호령하여 장연을 나립(羅立)하라 하니 무사 등이 쇠사슬로 장연의 목을 걸거 장하(帳下)의 이르매 장여니 쫓지 아니하고 셋거날 원수 대로 왕 “이제 도적이 침노함에 황상이 근심하샤 날로 하야금 도적을 막으라 하시니 내 황명을 밧자와 주소(晝宵) 용려하거날 그대난 국녹지신이 되어 엇지한 연고로 막중 군무사의 군량을 진시(盡時) 대령치 아니하야 군사로 하야금 금주림을 면치 못하게 하나뇨 장령(將令)을 어겼스매 군법은 사정(私情)이 업나니 그대난 나를 원망히 말나” 하고 무사를 명하야 내여 베이라 한대 장후 쏘한 노하야 왈 “내 비록 용렬하나 그대의 가부가 되거날 소소한 혐의로써 군법을 밧자하고 가부를 이갓치곤 욱하니 어찌 너자의 도리리오” 하며 종시 항거하거날 원수 장후의 거동을 보고 속으로난 우습이 나오지만 괴여히 항복을 밧고자 하야 외모를 더욱 엄숙히 하고 진짓 쫓지저 왈 “그대가 사람을 모르난도다 부부의 도난 집의 거해서 사사로온 일이 오 이 일은 국가 대사라 신자(臣子) 되어 국사를 먼저 하고 집 일은 뒤의 하난 거시 셋섯하거날 엇지 사정으로 군법을 그릇하리오” (...) 장휘 할일업서 냉수를 동의로 들고 벌덕벌덕 켜거날 원수 속으로 미소하고 무사를 명하야 군문 밧그로 내치니라 이제 장휘 분을 이기지 못하야 본부 군중으로 도라와 칭병하고 다시 장수 양중의 드러가지 아니하니 원수 장차 철통골을 쫓쳐 호국으로 향할 새 장연으로 전군대장을 삼아 속히 기병하란 전령이 엄절하거날 장휘 마지못하야 군마를 수습하야 발행하니라(504~506)

정수정은 기한 내에 군량을 조달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한 장연의 목에 쇠사슬을 걸어 끌고 오게 하는데, 장연은 수치심으로 인해 무릎을 꿇지 않는다. 또 정수정이 군령을 시행하라는 명을 내리자 남편의 권위와 아내의 도리를 거론하며 크게 반발한다.¹⁹⁾ 그러나 정수정이 군법은 사사로온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고 말하며 뜻을 꺾지 않자 궁색한 변명을 하며 정수정에게 굴복하게 된다. 정수정이 베어 죽이라는 명을 결곤(決棍)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냉수를 동이째 마시는 벌로 바꾸면서 장연은 거듭 굴욕을 겪는다.²⁰⁾

19) <정수정전>에서의 ‘군법’과 ‘가법’의 충돌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조현우,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위반·붕합·균열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236쪽 참조.

군문 밖으로 쫓겨난 장연은 수치심과 분함을 이기지 못해 칭병하고 군중에 들어가지 않는다.

전장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대원수의 특권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의 굴종이 없다는 것이다. 가부장제 아래서 권력을 지닌 남성의 관습적인 특권 중의 하나는 바로 수치나 공개적 굴욕을 면제받고 체면, 자존심, 평판, 존경 등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²¹⁾ 전장에서의 두 사람의 갈등은 바로 정수정이 장연으로부터 이러한 특권을 빼앗고 있다는 점에서 연유한다. 두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을 수 있는 희소한 사회적 가치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권리는 본래 남성의 것이었기에 장연은 아내인 정수정에게 당하는 공개적 굴욕을 거부하고 가부장으로서의 자신의 특권을 지키려 한다. 장연이 무릎을 꿇지 않고 정수정이 내리는 형벌을 거부하는 데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정수정은 가정에서는 가지지 못했던 모욕당하지 않고 존중받을 특권을 전쟁터에서 대원수로서 행사하고 있으며, 장연이 가지고 있는 가정 내의 가부장으로서의 권리보다 군법에 의거한 자신의 권리가 우위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장연에 대한 정수정의 군법 시행이 장연에 대한 희롱이나 괴롭힘처럼 보이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첫 출전에서 정수정이 장연을 직접 중군으로 지목하고, 두 번째 출전에서 군령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것을 짐작하고 군량을 때에 맞춰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은 군법을 시행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인용문 가운데 ‘속으로는 웃음이 나오지만’, ‘속으로 미소하고’ 등의 구절을 통해 장연을 처벌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처벌의 목적이 ‘기어이 항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한 것은 자신이 굴욕과 수치를 줄 수 있는 권력 상의 우위에 있음을 상대가 인정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정수정이 의도적으로 촉발하는 장연과의 대립과 갈등은 자신의 사

20) 필사본과 목판본에서는 곤장을 맞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진실, 앞의 글, 573쪽에서는 처벌을 ‘냉수 마시기’로 바꾼 일이 장연을 벌 주려는 행위가 장난임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21) 케이트 맨, 앞의 책, 207~212쪽.

회적 지위를 승인받기 위한 ‘인정 투쟁’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3. 여성영웅의 대응: 의의와 한계

지금까지 〈정수정전〉의 정수정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여성’ 그리고 ‘성공한 경쟁자로서의 여성’으로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이제 이러한 혐오를 여성영웅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자. 다음은 전투에서 돌아와 모친을 만난 정수정이 장연을 곤란에 빠트린 일을 모친에게 소상히 고하는 대목이다.

모부인을 뵈시고 전사를 담화하다가 복적을 파할 췌에 장후 곤박(困迫) 준 말삼을 일일이 고하니 모부인이 들으시고 웃어 갈아대 “남의 안해 되어 장부를 너무 조롱했도다. 이담 집에 도라가 그 중궤(中饋)에 거하난 날 대하야 보기 엇지 무안치 아니하며 도로혀 절제를 맞지 못할 거시니 그 췌의 후회됨이 업스랴?” 각노 미소하며 대왈 “조정에 잇서난 벼살 테예(體禮)으로 하고 집에 거해서난 부부에도 리를 일치 말고 각진기도(各盡其道)하면 엇지 허물을 잡으릿가.”(527)

정수정의 모친 역시 군령 시행을 ‘조롱’으로 여기고 있으며 웃으면서 이를 크게 탓하지 않는다. 다만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아내로 만났을 때 정수정이 곤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한다. 모친의 걱정에서 정수정은 조정에서는 벼슬의 높낮이에 따른 예절을, 집에서는 부부의 예절을 지키며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응답한다. 정수정은 승전한 후 다시 벼슬을 제수받는데, 모친에게 한 말을 통해 가정 생활과 조정 신료로서의 일을 병행해 나갈 뜻이 분명함을 알 수 있다. 가정 안과 밖의 규율을 명백히 구분하고 두 영역의 삶 모두를 성실히 해 나갈 것을 선언한 셈이다.

이후 정수정의 가정에서의 모습은 ‘도덕적 지원자’의 모습에 지극히 충실한 것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 다른 아내들과의 화목을 조금의 태만함

도 없이 수행해 나간다.²²⁾ 남편인 장연이 전장에서 군법을 빙자해 수치를 안긴 일로 ‘복수심’을 품고 자신을 냉담하게 대하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공(女工)에 충실하며, 하룻밤만에 조복을 지어내라는 장연의 무리한 요구에도 기꺼이 응한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아서 정수정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외면을 두려워하며 우울하고 근심스러운 나날을 보내기도 한다.

이제 각노 전후에 한 사상(事狀) 생각하고 태부인이 노하섯슬가 염녀하야 심사 올민하든차 (...) 한갓 장후가 전사를 혐의하고 덩후를 맞당이 아니 여겨 일정 대면을 아니하고 초방(椒房)의 친함이 날노 머리 가며 덩후의 일이라면 사사이 반대를 할 썩더러 궁중 상하 노솔(奴率)을 덩후 처소에나 일불현영(影影)케 하니 일노 인하야 덩후난 화월 궁중의 무료이 세월을 보내며 우려하난 수희가 날노 더하건만그럴수록 태부인 섬기난 성효며 양부인 화목하난 성심이 조금 해태함이 업스되 한갓 장후난 전일 복디에 갓슬 썩에 군 지체한 죄로 군법을 빙자하고 만군 중에 무쌍한 수치를 당케 하던 혐점(嫌點)이 항상 속에 앙양하야 한번 그 곤란당 하든 대거리를 갑고자 하나 원악 덩후에 정정방방한 터에 조고마한 괴과라도 잡을 수가 업고 한갓 규문 속에 절제나 주고자 하나 그연 태연하고 부부지도에 일호 억임이 업스니 막가내하(莫可奈何)라(528~529)

인용문은 두 번째 출전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의 사정을 묘사한 대목이다. 전장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혐오의 결과는 배척과 고립이다.²³⁾ 정수정은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리지나 않았을까 하는 걱정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며, 장연의 외면으로 날마다 근심한다. 장연은 정수정과 대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수정과 관련된 일은 모두 반대하고 하인들이 정수정의 처소에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정 사회 내에서 정수정을

22) “지성으로 태부인을 섬기고 화목으로 양부인을 교제하야 만당화귀가 율용하나 (...) 그럴수록 태부인 섬기난 성효며 양부인과 화목하난 성심이 조금 해태함이 업스되”(528)

23) 케이트 맨, 앞의 책, 424쪽.

고립시킨다. 여성혐오는 여성들의 도덕적 결함을 이유로 그들에게 훈계하듯 굴욕을 안기거나 망신을 주는 행태와 결부되어 있는데,²⁴⁾ 장연은 다른 사람 앞에서 정수정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행위, 혹은 정수정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수정에게 받은 수모와 망신을 돌려준다.

이와 같은 비물리적인 폭력에 대한 정수정의 대응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시어머니를 더욱 공경하고, 남편의 다른 아내들과 화목하게 지내며 ‘부부지도’(夫婦之道)에 충실함으로써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다. 시어머니의 분노 또한 정수정이 남편의 통제를 벗어나 남편의 우위에 서고자 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며,²⁵⁾ 결국 정수정이 시어머니를 효성스럽게 모시고 남편인 장연을 공순(恭順)하게 대함으로써 누그러진다. 이는 혐오가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고 가부장제가 할당한 가정 내의 임무로 여성을 복귀시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수정 또한 타협을 통해 혐오의 명령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배척과 고립을 통해 여성을 길들여 가부장제가 정한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것이 여성혐오의 지향이다.

그렇기는 하나 정수정이 처음 의도한 바와 같이 가정 밖에서의 삶을 끝까지 병행했다는 점은 적지 않은 의의를 가진다. 정수정과 장연은 각각 청주후와 기주후로 봉해져 대등한 지위에 있었던바 정수정이 끝까지 조정의 신료로 남은 것은 가부장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고자 하는, 평등한 관계에 대한 지향을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두 사람이 화해한 후 장연이 “지금도 군법을 잘 쓰난잇가”라고 묻자 정수정은 웃으며 “지금이라도 쓰게 되면 쓰다 썩이온잇가”라고 대답한다. 이 문답 또한 정수정이 가정 내의 가부장적 질서 밖에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혹은 남성의 우위에서 권위를 유지하고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

24) 케이트 맨, 앞의 책, 72쪽.

25) “네 벼살이 공후의 거하여 한 너자를 제어치 못하니 엇지 세상의 행신(行身)을 하며 백성을 다사리리오 자식 되야 어미 신임하난 시비를 결장함도 가치 하니하거든 하물며 참형지경에 이르니 이난 불가사문어타인(不可使聞於他人)이라”(500)

시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정수정의 아들이 어머니의 ‘유산’(遺産)을 계승하고 외손봉사(外孫奉祀)를 한다는 점도 주목을 요한다. 여성영웅소설의 외손봉사는 기본적으로 여성영웅의 부친에 대한 ‘효’(孝)와 모계를 통한 가문 계승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티프이다.²⁶⁾ 정수정은 2남 1녀를 두는데 차남에게 자신의 식읍(食邑)인 청주를 물려주면서 부친인 정국공의 제사를 받들게 한다. 무남독녀 외동딸인 여성영웅의 가문 계승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대부분의 작품과 달리²⁷⁾ 차남에게 어머니 정수정의 뒤를 잇게 한 것은 정수정의 사회적 활약이 지대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성과가 후대에도 지속성을 가지고 계승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⁸⁾ 정수정은 혼인 후에도 벼슬을 유지하고 그 영광을 아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여성의 능력 발휘와 사회적 활약이라는 주제를 희석시키지 않고 전면으로 밀고 나갔다. 곧 〈정수정전〉은 여성혐오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타협과 모색을 통해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을 병행하는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정수정전〉은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해진 오늘날에 비로소 현실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여남의 경쟁과 여성에 대한 혐오의 실상을 ‘조선적’ 상상력으로 예견하여 보여주는 작품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정수정전〉은 기본적으로 여남의 능력의 절대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성평등적 지향을 보여주는 작품이다.²⁹⁾ 특히 방각본 계열과 활자본 계

26) 전이정, 「여성영웅소설연구 - 서사단위와 구성원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84쪽.

27) 외손봉사 모티프는 「설저전」, 「이봉빈전」 등의 작품에서 드물게 나타난다.

28) 필사본에서도 작품의 마지막까지 정수정이 조정의 벼슬과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허리에 인슈 내흔 잊지요 혼나흔 뒤원슈인이요 혼나흔 병부상셔 인이요 쏘 혼나흔 좌각노의 인이로소이다 좌우 다 듯고 두려헿더라”(119쪽)

29) 모친과 친자는 정수정이 여자라는 이유로 그 능력을 의심하거나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열에서 장연의 목소리가 부각되며 장연과 정수정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강화되는 것은³⁰⁾ 방각본과 활자본이 등장하는 후대로 갈수록 리더인 여성에 대한 혐오의 강도가 강해지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의식과 실제의 차원에서 확장되며 더욱 치열한 여남의 서사적 대결이 나타나난 것으로 보인다. 쉽게 풀리지 않고 반복되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결과적으로 작품의 흥미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평화로운’ 가정 생활 사이에는 쉽게 미봉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큰 갈등 없이 여성영웅의 우위를 보여주는 작품은 여성의 잠재적 가능성을 상상적으로 펼쳐 보인다는 의의가 있지만, <정수정전>과 같이 갈등과 통제가 나타나는 작품은 여성의 능력 및 욕망 그리고 가부장제의 질서가 길항하는 양상을 들여다보고 여성이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소설적 고민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별도의 의의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여성혐오라는 개념을 통해 <정수정전>에 나타난 여성리더-여성영웅과 가부장제의 상호작용에 대해 고찰하였고, 그 결과 유교적 질서의 통제가 강화된 보수적 면모가 부각되는 작품이라는 일부의 평가와 달리 이 작품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의 혐오를 다양한 방식으로 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여성의 대응을 보여준다는 점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영웅이 여성혐오에 대응하는 방식이 작품의 문제의식과 지향에 관건적 중요성을 지닌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여성영웅소설 일반에서 여성혐오의 양상과 여성영웅의 대응 방식을 살피는 작업은 후속 과제로 남긴다.

않는다. “부인이 수정에 등을 어로만지며 ‘너난 너자로 낫스나 황상의 위태하심을 구하야 국가의 대공을 세우니 가위 너중호걸이로다’”(525); “상이 보시기를 다하시고 비답하야 갈아사대 ‘경이 비록 너자나 재용은 옛적 광[관]중 약의를 비할지라 국가에 유척이니 엇지 남녀가 다름으로 동량에 재목을 일리오’”(527)

30) 서혜은, 앞의 글, 279쪽.

■ 참고문헌

- 〈녀장군전〉, 『구할자본고소설전집』 26, 인천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4.
- 〈정수경전〉, 박순호 편, 『한글필사본자료총서』, 보경문화사, 1986.
- 〈鄭秀晶傳〉, 翰南書林, 1920.
- 마사 누스바움, 『타인에 대한 연민』, 임현경 역, 알에이치코리아, 2020.
- 버지니아 울프, 『자기만의 방』, 이미애 역, 예문, 1995.
- 케이트 맨, 『다운 길: 여성혐오의 논리』, 서정아 역, 글항아리, 2023.
- 곽정식, 「〈정수정전〉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실현 양상」, 『어문학』 72, 한국어문학회, 2001.
- 곽현희,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남성인물 형상과 의미 - 〈이현경전〉의 남성인물을 중심으로 - 」, 『고전문학과 교육』 51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22.
- 김영희, 「한국 구술서사와 여성혐오」,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8.
-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한국 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 소명출판, 2017.
- 박희병, 『한국고전문학사 강의』 2, 돌베개, 2023.
- 사진실, 「〈정수정전〉 일본의 계통과 변모 양상」,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 집문당, 1998.
- 서혜은, 「〈정수정전〉의 대중화 양상과 그 의미」, 『어문학』 92, 한국어문학회, 2006.
- 송소라, 「남성체절서사 다시 읽기: 해학과 풍자에 가려진 여성혐오」, 『어문연구』 48권 3호, 어문연구학회, 2020.
- 이정아, 「시집살이 노래의 노랫말에 나타난 여성혐오와 그 의미」, 『우리문학연구』 60, 우리문화회, 2018.
- 임현아, 「〈정수정전〉에 나타난 성 역할 인식의 변화 고찰」, 『장서각』 3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 전기화, 「조선후기 여성영웅소설 〈정수정전〉 재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8.
- 전이정, 「여성영웅소설연구 - 서사단위와 구성원리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조현우,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위반·봉합·균열의 문제」, 『한국고전연구』 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 최지너,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이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Heroine Novel *Jeongsujeongjeon* from the perspective of Misogyny

Choi, Ji-nyeo*

The protagonist of the heroine novel in the late Joseon Dynasty is the official and general in high places, represented as a so-called ‘women leader’. Martha Nussbaum, American philosopher, saw that the hostility felt by men when women tried to become leaders was related to criticism, hatred, and envy. These hostile words and actions are able to collectively called ‘misogyny’, Misogyny in a general sense means the nature of individual misogynists who tend to hate women because they are women, and misogyny in a structural sense can be understood as an attribute of the social environment that regulates and enforces the norms, expectations, and governing ideologies of patriarchy. *Jeongsujeongjeon*, one of the main works of the heroine novel, is a work that highlights women’s activities and conflicts with the hero, so signs of misogyny are more evident. First of all, the characters around the female hero regard the female hero as ‘a woman who does not fulfill her duty’. The main female character, Jeongsujeong is criticized or ridiculed from those around her for not fulfilling her duty of moral assistance in the home. Male characters mainly remind Jeongsujeong, who comes into the male area as court and the battlefield, through hate speech, of the duty of housework and the role of his wife. On the other hand, the male protagonist considers the female protagonist as a more successful competitor than himself. They are the two most outstanding characters in the work and are therefore also the most competitive. Jangyeon in *Jeongsujeongjeon* causes conflict by

* Hongik University, Senior Lecturer

constantly blaming Jeongsujeong for her higher position and making greater contributions than him. The two compete for scarce values that can be exempted from shame or public humiliation on the battlefield and can take face, pride, reputation, and respect. After marriage, Jeongsujeong strives to honor her mother-in-law and maintain a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her husband's other wives by being faithful to the role of a moral supporter. Jangyeon returns the humiliation he received on the battlefield to Jeongsujeong through acts of criticizing her in front of others and collective bullying, which shows the process of restricting women's social activities and returning women to domestic duties assigned by the patriarchy. Nevertheless, the fact that Jeongsujeong maintains her social life to the end, and her son inherits her mother's legacy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 female subject who does not completely succumb to misogyny.

Key words : misogyny, heroine novel, *Jeongsujeongjeon*, patriarchy, hate speech, moral support, rivalry